

KDC 第4版에서의 四部分類 項目 展開의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n the Items of Four Category
Classification in the 4th Edition of KDC

金 亨 淑(Kim, Hyung-Sook)*

姜 順 愛(Kang, Soon-Ae)**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KDC에서의 한국학 관련
주제의 확장전개 |
| 2. KDC에서의 사부분류 항목
전개 과정의 변화 | 5. KDC 제4판의 개선방안 |
| 3. KDC와 동양의 십진분류법
사부분류 항목의 비교·분석 | 6. 결 론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KDC 제4판의 사부분류 항목 전개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보완하여 KDC 제4판 개정 작업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KDC 제5판의 시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KDC 제1판부터 제4판까지 사부분류 항목 전개 과정의 변화, KDC 제4판과 동양의 십진분류법의 사부분류 항목 전개의 비교·분석, KDC 한국학 관련 주제의 확장전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KDC 제4판의 사부분류 항목을 평가하고 이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 방안은, 1) 경진류에서 누락되었던 삼례총의, 통례, 잡례, 논맹, 학용 등의 항목을 신설하였다. 2) 자서류는 CSC를 참고하여 세분 전개하였다. 3) 금석류에서 금석학과 진화학을 고고학의 하위항목으로 재배정하였고, 지리류 중 유기는 세분 전개하였다. 4) 전개되고 있지 않던 시령과 고의기를 신설하였다. 5) 집부에서 한국 문학사의 시대구분을 구체화하였다. 6) 한국학 관련 주제의 확장전개가 상법·운명판단, 불교경전, 한의학, 국악, 고문서에서 이루어졌다.

要語: KDC 제4판, 사부분류, KDC 제5판, KDC, 한국십진분류법

* 송인서적 기획홍보실(ell81@nate.com)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09년 6월 4일 최초심사일: 2009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12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the defects in the items of Four Category Classification in the 4th edition of KDC and propose a plan to improve them in the 5th edition.

In this study, the following issues are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Four Category Classification from the 1st to the 4th edition of KDC, an analysis of the features of Four Category Classification represented in the Oriental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 in comparison with Four Category Classification in KDC, and the expansion of the topics in Korean studies in KDC. Based on the results from this analysis, a plan to improve the items of Four Category Classification in the 4th edition of KDC is proposed as follows:

- 1) The items such as 'Tongrye', 'Samryecheongeui', 'Japrye', 'Nonmaeng' and 'Hakyong' originally omitted from the 'Gyeongjeonryu(經典類)' are newly added.
- 2) 'Jaseoryu(字書類)' is subdivided, based on CSC.
- 3) In 'Geumseokryu(金石類)', epigraphy and numismatics are rearranged as subdivisions of archeology, and 'Yugi(遊記)' are subdivided.
- 4) 'Siryongryu(時令類)' and 'Goeuigi(古儀器)' which were not expanded before, are newly added.
- 5) In the Class of Anthologies, the chronology of Korean literary history is specified.
- 6) The topics such as physiognomy, Buddhist scriptures, Oriental medicine, Korean medicine, Korean music and old documents in relation to Korean studies are expanded.

Key words: KDC 4th edition, Four Category Classification Items.
KDC 5th edition, KDC

1. 서론

1.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KDC는 1964년에 제1판이 간행된 이후에 1996년에 간행된 제4판에 이르기까지 용어의 변경, 분류항목의 이치, 주기의 신설·변경·삭제, 항목의 삭제 및 신설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KDC는 제1판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형태의 개정만을 지속해왔다. 사부분류 항목에 있어서도 KDC 제1판 전개 이후 4판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학문의 체계와 발전의 흐름을 수용한 개정·증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많고, 고문헌이 번역되어 신서로 발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용자는 고서와 신서의 구분 없이 같이 검색하므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서관에서는 KDC와 사부분류법을 함께 쓰고 있거나 KDC로 변환해가는 추세여서 사부분류 항목의 미비점 보완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학 관련 주제들은 도서관 현장으로부터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지만 KDC 분류표의 개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지금까지 KDC의 분류체계에 있어서 사부분류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부분류법을 동양의 십진분류법 등의 기타 분류표와 비교 분석한 것, 사부분류법의 전개와 그 류속(類屬)을 중심으로 다룬 것, 사부분류법 항목 중 한국학 관련 주제 분야를 다룬 것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KDC 제4판을 개정하여 5판의 시안에 실제 적용할만한 개정안의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DC 제4판의 사부분류 항목 전개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보완하여 KDC 제4판 개정 작업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KDC 제5판의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KDC 제1판부터 제4판까지 사부분류 항목 전개 과정의 변화, KDC 제4판과 동양의 십진분류법의 사부분류 항목 전개의 비교·분석, KDC 한국학 관련 주제의 확장전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KDC 제4판의 사부분류 항목을 평가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본 연구는 KDC 제4판에서의 사부분류 항목의 미비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KDC와 동양의 십진분류표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KDC 제1판부터 제4판까지의 사부분류 항목의 변화 분석은 KDC 제1판부터 제4판까지의 분류표를 분석하는 문헌중심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KDC의 변화된 내용을 용어의 변경, 분류항목의 이치, 주기의 신설·변경·삭제, 항목의 삭제 및 신설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둘째, KDC 제4판과 동양의 십진분류법의 사부분류 항목 전개의 비교·분석은 대만의 중국도서분류법(개정 8판), 중국의 중국도서관분류법(4판), 일본의 일본십진분류법(9판)을 대상으로 하여 각 분류표를 KDC 제4판과 비교·분석하였다. KDC 제4판 보다 세분 전개된 항목을 찾아서 KDC 체계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KDC와 동양의 십진분류법에서 비교될 수 없는 한국학 관련 주제 분야는 도서관 현장으로부터 끊임없이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던 상법·운명판단, 불교경전, 한의학, 국악, 고문서로 한정하였다. 각 분야에서 KDC 전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해당 분야의 전문 분류표를 비교·분석하여 도서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KDC 제4판에서의 사부분류 항목의 미비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KDC에서의 사부분류 항목 전개 과정의 변화

KDC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1963년에 구성된 분류분과위원회의 편찬과정을 거쳐 1964년 KDC 제1판이 발행되었다. KDC 제1판 편찬에서 사부분류 항목은 동양학 분야의 전개를 위해서 「사고전서총목」을 참고하여 전개되었다. KDC 제1판을 발행하고 나서 곧이어 1966년에 KDC 제2판이 발행되었는데 이는 KDC 제1판이 오자(誤字)와 탈자(脫字)가 많아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게 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빠른 개정이었다.¹⁾ 1980년에 KDC 제3판이 발행되었고 KDC 제4판은 KDC 제3판 이후 약 6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6년만인 1996년에 발행되었다. KDC 제4판은 오랜 준비기간과 주제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분야별 책임개정, 지상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최근의 학문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본 장에서는 KDC의 사부분류 전개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사고전서총목」의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KDC 제1판부터 제4판까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經部

경부는 여러 경전과 소학류를 모아놓은 것으로 이의 분류는 KDC 제4판에서는 '140 經學'과 '700 言語'에 배정되었다. 경부의 항목으로는 역류(易類), 서류(書類), 시류(詩類), 예류(禮類), 악류(樂類), 춘추류(春秋類), 효경류(孝經類), 오경총의류(五經總義類), 사서류(四書類), 소학류(小學類)가 있다.

경부 분류의 KDC 제1판부터 제4판까지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의 변경은 '140.8 全集, 叢書, 講座'(1판-3판)가 '140.8 叢書, 全集, 選集'(4판)으로 변경되었고, '711.1 音韻論, 音聲學'(1판-3판)이 '711.1 音韻, 音聲, 發音'(4판)으로, '721.1 音韻論, 音聲論'(1판-3판)이 '721.1 音韻, 音聲, 發音'(4판)으로 변경되었다.

1) 오동근, 「KDC의 이해」(서울: 태일사, 2002), 24.

둘째, 분류항목의 이치는 KDC '140.19 經學史'(1판-3판)가 140.109(4판)로 이동하였고, '723.2 字典'(1판-3판)은 723.02(4판)로 이동되었으며, '713.4 故事熟語辭典'(1판-3판)이 713.04(4판)로 이동되었다.

셋째, 주기의 변경은 '140 經學'에서 '140.2, 140.7은 형식구분한다.'는 주기가 4판부터 삭제되었고, '711.47 漢字教習書'의 주기가 4판에 와서 보장되었다.

넷째, 항목의 신설은 '713 辭典'에서 4판부터 '713.01 韻書'와 '713.02 字典, 玉篇'이 신설되었다. 723과 733의 주기에는 '713.01-.04와 같이 세분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713.1 國語辭典'과 '713.2 漢韓字典'(1판-3판) 항목이 삭제되고 4판부터 '713.2-.9 2個 國語辭典'이 신설되었고, '721.29 檢字法(部首, 總劃, 四隅番號化)'과 '723.1-.9 2個 國語辭典'이 4판부터 신설되었다.

2.2 史部

사부는 사전(史傳)에 관한 것과 모든 사학서(史學書)를 말하며, KDC 제4판에서는 '900 歷史' 아래에 배정되고 있다. 사부의 항목은 정사류(正史類), 편년류(編年類),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별사류(別史類), 잡사류(雜史類),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전기류(傳記類), 사초류(史鈔類), 제기류(載記類), 시령류(時令類), 지리류(地理類), 직관류(職官類), 정서류(政書類), 목록류(目錄類), 사평류(史評類)이다.

사부 분류의 KDC 제1판부터 제4판까지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의 변경에서 911.005가 정기간행물(1판-2판), 축차간행물(3판), 연속간행물(4판)로 변경되었고, '911.05 李朝時代'(1판-3판)가 조선시대(4판)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용어의 변경은 KDC 제1판부터 제4판까지의 변화과정에서 여러 항목에서 나타난다. '911.004 論文集, 講演集, 史評'(1판-3판)이 4판부터는 항목명에서 논문집이 빠져 '911.004 講演集, 史評'(4판)으로 변경되었고, '911.007 研究 및 指導'(1판-3판)가 '911.007 指導法 및 研究法'(4판)으로, '911.008 全集, 叢書, 機關, 講座'(1판-3판)가 '911.008 全集, 叢書'(4판)로 변경되었고, '193.2

吏道'(1관-3관)가 '193.2 吏道, 清白吏'(4관)로의 변경 등이 나타난다.

둘째, 분류항목의 이치에서 '018 販賣書誌'(1관-2관)는 3관에서 항목의 개념이 확장되어 '018 參考書誌'로 바뀌었다. 기존의 '販賣書誌'는 3관에서는 '018 參考書誌' 아래 '018.9 販賣目錄'으로 배정되었고, 4관에서는 '販賣目錄'이 '販賣圖書目錄'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018에서는 이 외에도 세목의 변동이 이루어졌는데, 3관에 와서 '018.1 參考圖書目錄, 辭典目錄', '018.3 基本圖書目錄', '018.4 學位論文目錄', '018.5 雜誌記事索引', '018.6 마이크로 資料目錄', '018.7 新聞記事索引'이 신설된 것 등인데 4관에서는 용어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980.11 方法論'(1관-3관)이 980.73(4관)으로 이동하였고, '980.19 地理學史'(1관-3관)가 980.109(4관)로 이동하였으며, '901.9 史學史'(1관-3관)가 901.09(4관)로 이동하였다.

셋째, 주기의 변경은 '990.91 書誌學者', '980 地理', '980.2 名勝案内, 旅行', '990.94 女人'의 주기가 4관에 와서 변경되었다. 992-996의 주기와 '980.29 探險記, 發見記'의 주기는 2관부터 변경되었다. '999 系譜, 族譜'는 주기내의 '가나다순'(1관-3관)이라는 표현을 '자모순'(4관)으로 변경하였다.

넷째, 항목의 신설은 KDC 제4관에서 '990.3 世界人名辭典' 항목이 설정되었고, '320.9 經濟史'에서 '320.906 21世紀經濟史'가 신설되었다. 항목의 삭제는 '901.1 史學方法論'(1관-3관)이 삭제되었다.

2.3 子部

자부는 어느 저술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과 사상을 발표한 모든 저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KDC 제4관에서는 '100 哲學' 및 각각의 해당 주제의 아래에서 배정되고 있다. 자부의 항목은 유가류(儒家類), 병가류(兵家類), 법가류(法家類), 농가류(農家類), 의가류(醫家類),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술수류(術數類), 예술류(藝術類), 보록류(譜錄類), 잡가류(雜家類), 유서류(類書類), 소설가류(小說家類), 석가류(釋家類), 도가류(道家類)이다.

자부 분류의 KDC 제1관부터 제4관까지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의 변경에서 '151.53 退溪派', '151.54 栗谷派'(1관-3관)는 退溪學派, 栗谷學派(4관)로 변경되었고, '448.3 曆'(1관-3관)이 '448.3 달력(曆)'(4관), '448.75 時間標準'(1관-3관)이 '448.75 標準時間'(4관)으로 변경되었다. '649.1 毛筆'(1관-3관)이 '649.1 붓(毛筆)'(4관), '649.4 紙刀'(1관-3관)가 '649.4 종이칼(紙刀)'(4관)로 변경되었는데, 이와 같이 한자용어가 한글용어로 바뀐 것은 4관 예술류의 여러 항목에서 나타난다. '679.41 西道歌謠'(1관-3관)가 '西道唱'(4관), '679.43 南道歌謠'(1관-3관)가 '南道唱(4관)'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040 一般論文集, 講演集'(1관-3관)이 '040 講演集, 隨筆集, 演說文集'(4관)으로 변경되었다. '442 實地 天文學'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는 용어인 '機具', '器械'(1관-2관)가 '器機'(3관-4관)로 통일되었고, '448.36 줄리어스曆'(1관-3관)이 '율리어스曆(4관)으로 변경되었다. '650.7 研究, 指導, 畫塾, 아트리에'(1관-3관)가 指導法, 研究法(4관)으로 변경되었다. '519 漢方醫學'(1관-3관)이 한의학(4관)으로 변경되었다. 519는 항목명이 바뀌면서 항목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었다. 519 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분류항목의 이치, 주기의 변경 및 신설, 항목의 신설 및 삭제 등이 있었다. 분류항목의 이치는 '519.2 漢醫治療學'(1관-3관)이 519.22(4관)로 '519.7 漢醫衛生學'(1관-3관)이 519.76으로 이동되었다. 항목의 신설은 위의 두 항목이 이치되면서 기존의 분류기호에 '519.2 韓의臨床學'(4관), '519.7 特殊 韓方主題, 四象醫學'(4관)이 신설되었다. 항목이 신설되면서 하위항목도 새롭게 전개되었다. '519.8 韓의藥學'도 4관부터 하위항목이 세분되어 새롭게 전개되었다. 또한 4관부터 '519.01 理論', '519.011 韓의학 醫經', '519.012 陰陽五行論', '519.014 五運六氣論', '519.016 四象論', '519.019 기타 諸理論'이 신설되었다. 항목의 삭제는 1관의 '519.9 各國 漢醫學'이 2관부터 삭제되었고 '519.9 鍼灸學'(2관)이 신설되었는데 4관에 와서 세분하여 전개되었다. 주기의 변경은 '519.1 韓의基礎學'의 주기가 '필요에 따라 511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1관-3관)에서 '臟腑學을 포함한다. 도서관에 따라 511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例: 韓의生理學 519.11'(4관)로 변경되었다.

둘째, 분류항목의 이치는 ‘679.09 韓國音樂史’(1관-3관)가 670.911(4관)로 이동되었고 기존의 분류기호인 679.09(4관)는 國樂史로 변경되었다. ‘440.92 古代天文學’(1관)이 440.902(2관-4관)로 변경되었다.

셋째, 주기의 변경은 4관에서 판소리를 ‘679.4 唱劇’의 주기에 추가하였다. 그 밖에 변경된 주기는 ‘188.4 地相, 家相, 墓相, 方位, 印相’, ‘440.902 古代天文學’, ‘448.2 時間의 間隔’, ‘448.78 測時用器機’, ‘654 主題別 繪畫’, ‘654.482 花草畫’, ‘679.35 風謠(民謠)’, ‘679.59 기타 俗樂, 鄉樂’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항목의 신설은 ‘151.6 東學思想’이 4관부터 신설되고, ‘188.8 占星法’이 2관부터 신설되었는데 4관에서 와서는 ‘188.8 占星法(術)’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3관부터 ‘650 繪畫, 圖畫’에서 ‘650.1 繪畫理論’, ‘650.2 雜著(便覽, 書誌, 人名錄)’, ‘650.3 辭典, 事典’, ‘650.4 評論, 隨筆’, ‘650.5 連續刊行物’이 하위항목으로 신설되었다. 4관에서 ‘650.74 畫室, 아트리에’, ‘654.35 民畫’가 신설되었고, 음찬류인 ‘594.55 材料別 料理’가 매우 상세하게 전개되었다.

다섯째, 항목의 삭제는 031-033의 세목인 -.2 類書, -.3 節用集, -.4 事物起源, -.5 名數, -.7 欸集이 2관부터 삭제되었다.

여섯째, ‘220 佛教’는 항목 내에서 전체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보면, 용어의 변경, 분류항목의 이치, 주기의 변경 및 신설, 항목의 신설 및 삭제 등의 전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2.4 集部

집부는 문학에 관한 저술로 고문(古文), 시부(詩賦), 사곡(詞曲)등을 말하는데, KDC 제4판에서는 ‘800 文學’ 아래에 배정되었다. 집부의 항목은 초사류(楚辭類), 별집류(別集類), 총집류(總集類), 시문평류(詩文評類), 사곡류(詞曲類)이다.

집부 분류의 KDC 제1관부터 제4관까지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의 변경은 ‘823 小說’에서 ‘823.2 古代小說’, ‘823.4 中世小說’(1관-3관)이 KDC 제4관부터 ‘古代’, ‘中世’와 같이 시대만을 기술하였다. ‘823.7 民國時

代’(1판-3판)가 823.7 現代’(4판)로 변경되었다. 또한 818, 828, 838의 ‘기타’(1판-2판)가 ‘르포르타주 및 기타’(3판-4판)로 변경되었다. ‘810.9 文學史’, ‘820.9 中國文學史’(1판-3판)가 ‘810.9 文學史, 評論’, ‘820.9 中國文學史, 評論’(4판)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주기의 변경은 ‘811.4 民謠, 俗謠’, ‘810.91-.99 地方文學史’, ‘821 詩’에서 나타난다.

셋째, 항목의 신설은 ‘820.81 個人全集’, ‘820.82 2人以上の 全集’ 항목이 4관부터 신설되었다.

3. KDC와 동양의 십진분류법 사부분류 항목의 비교·분석

청나라 말기에 이르러 서양의 학문이 도입되어 신서(新書)가 많아지자 전통적인 사분법만을 이용하여 도서를 분류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많은 새로운 분류법이 출현하였다. 중국도서분류법(이하 ‘CSC’로 칭함)은 그 가운데 1929년 유국균(劉國鈞)에 의하여 대만에서 편찬된 것이다. CSC는 남경(南京)의 금릉대학도서관(金陵大學圖書館)의 중문도서(中文圖書)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분류법을 참조하여 편찬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1년 최신판인 개정 8판이 편찬 간행되었다.

중국도서관분류법(이하 ‘중도법’으로 칭함)은 중국국가문물관리국의 배려와 지원 아래에 북경도서관이 제안하고 전국 36개 기관이 참조하여 편찬한 분류법이다. 1975년 초판이 간행된 이래 중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 도서 분류법이 되었으며, 1981년에 중국국가표준국은 전국 문헌 표준화 기술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도법을 국가 사용 표준으로 삼았다. 그 후 1999년 3월 최신판인 제4판이 편찬 간행되었다.²⁾

일본십진분류법(이하 ‘NDC’로 칭함)은 1929년 모리기요시(森清)가 그 이전에

2) 김종천, “중국도서관분류법의 분류 기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22집(2001), 201-229.

발표된 「화한양도서공용십진분류표안(和漢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을 「일본십진분류법(日本十進分類法)」으로 개제(改題)하여 출판된 이후 1942년에 개정 5판까지 발간하게 되었다. 그 후 1950년 일본 도서관협회에서 종래의 개인저작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신정 6판을 발간하면서 NDC는 일본의 표준분류표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거듭 개정 절차를 거쳐서 1995년 신정 9판이 발간되었다.

본 장에서는 위의 세 분류표와 KDC 제4판의 사부분류 항목을 경·사·자·집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經部

동양의 십진분류법의 경부 전개를 KDC 제4판과 비교·분석하여 KDC에서 신설되거나 세분 전개될 항목을 <표 1>로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DC는 예류의 다섯 개의 속 중에서 주례(周禮), 의례(儀禮)는 항목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삼례총의(三禮總義), 통례(通禮), 잡례(雜禮)는 항목으로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CSC는 이 중 삼례총의, 통례를 전개하고 있고, 중도법에 서도 세 항목 중 통례를 전개하고 있다. KDC에서도 예류에서 전개하고 있지 않은 3개의 항목을 '144 禮類' 아래에서 미사용 기호를 사용하여 분류기호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KDC에서 춘추류는 춘추의 주석서와 춘추위를 '146.1 左氏傳', '146.2 公羊傳', '146.3 穀梁傳', '146.9 春秋緯'로 전개하고 있다. CSC는 이 4개의 항목 이외에 '095.4 三傳總義', '095.5 三傳異文'를 더 전개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여 이의 두 항목을 KDC에 배정하도록 한다. 그런데 그 장서량이 많지 않아 개별항목으로 배정하는 것 보다는 '146 春秋'의 주기에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KDC에서 사서류는 '148 四書' 아래에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를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논어와 맹자, 중용과 대학의 합본이 많이 발행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분류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CSC에서는 '097.6 論孟', '097.7 學庸'을 별도의 항목으로 전개하고 있어 이를 참조하여 KDC에서도 '148 四書'의 하위 분류기호 중 미사용 기호를 이용하여 논맹과 학용을 개별항목으로 전개하도록 한다.

넷째, 소학의 자서와 운서는 동양의 십진분류법에서 분류법체계가 대동소이하나 KDC의 경우 '721.3 注音符號'를 '721.1 音韻, 音聲, 發音'과 '721.2 文字, 漢字'의 동위항목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NDC가 '821.1 音聲. 發音. 音韻: 四聲', '821.2 漢字'의 동위항목으로 '821.3 注音符號'를 전개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CSC는 '802.4 音韻 ; 韻書' 아래에서 주음부호를 전개하고 있다. 주음부호는 중국의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므로 KDC에서 '721.1 音韻, 音聲, 發音'의 하위항목으로 배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또한 자형(字形)은 KDC 제4판에서는 전개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중국문자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CSC가 이를 상세하게 전개하고 있어 이를 참조하여, KDC에서 자형 항목을 신설하여 세분 전개하도록 한다.

<표 1> KDC와 동양의 십진분류법과의 경부 비교·분석

항목	KDC 제4판	CSC	NDC	중도법	비고
禮類	100 哲學 140 經學 144 禮類 .1 周禮 .2 儀禮 .3 禮記 .4 大載禮 .9 禮緯	0 總類 090 經學通論 094 禮 .1 周禮 .2 儀禮 .3 禮記 .4 大載禮記 .6 三禮總義 .7 通禮 .9 禮緯	100 哲學 123 經書 123.4 禮類: 周禮, 禮記, 大載禮	K 歷史, 地理 K89 風俗習慣 K892.9 古代禮制 K892.96 通禮	'144 禮類' 아래에 三禮總義, 通禮, 雜禮를 신설
春秋類	146 春秋 春秋胡傳, 春秋大傳 등의 註疏論說, 篇章研究 등을 포함한다. 1 左氏傳 2 公羊傳 3 穀梁傳 9 春秋緯	095 春秋 .1 左傳 .2 公羊傳 .3 穀梁傳 .4 三傳總義 .5 三傳異文 .9 春秋緯	123.6 春秋類	K225 春秋	'146 春秋'의 주기에 三傳總義, 三傳異文 을 추가

四書類	148.1 大學 學庸은 이에 분류한다. 148.2 中庸 148.3 論語 論孟은 이에 분류한다. 148.4 孟子	097 四書 .1 論語 .2 孟子 .3 大學 .4 中庸 .5 四書總義 .6 論孟 .7 學庸	123.8 四書 .81 大學, 學庸 .82 中庸 .83 論語, 論孟 .84 孟子	B哲學, 宗教 B2中國哲學 B82倫理學(道德哲學) B22 先秦哲學 B222 儒家 .1 四書	'148 四書' 아래에 論孟과 學庸을 신설
小學類	700 言語 720 中國語 721 音韻, 音聲, 文字 721.1 音韻, 音聲, 發音 .2 文字, 漢字 .22 訓詁 .3 注音符號	8 語文類 802 中國言語 .1 訓詁 .2 字書: 文字 .21 說文 .22 注釋 .23 六書 .24 聲韻 .25 專著 .26 新附及逸字 .27 部首及啓蒙 .28 說文後字書 .29 字體 .291 古文: 奇書 .293 印瓦等文 .294 篆書 .295 隸書 .296 行草 .297 楷書(今隸) .299 簡筆字 .4 音韻: 韻書 (생략)... .48 注音符號	800 言語 820 中國語 821 音聲, 音韻, 文字 .1 音聲, 發音, 音韻: 四聲 .2 漢字 .3 注音符號 .8 ㄱ-ㅁ字表記法	H言語, 文字 H13 語義, 詞匯, 詞義 (訓詁學) H16 字書, 字典, 詞典	'721.3 注音符號' 를 721.1의 하위 항목으로 이치 721.2 아래에 字 形 등을 신설하고 세분 전개함

3.2 史部

동양의 심진분류법의 사부 전개를 KDC 제4판과 비교·분석하여 KDC에서 신설되거나 세분 전개될 항목을 <표 2>로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DC는 금석류를 '902 歷史補助學' 아래, '902.4 金石學', '902.5 考古學', '902.6 錢貨學(古錢學)'으로 배정하였다. 이의 전개를 보면 금석학이 고고학보다 앞서 있으며, 세 항목이 동위항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CSC와 중도법에서는 고고학 아래에 금석학과 전화학을 전개하고 있다. 고고학은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³⁾이고 전화학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사용된 화폐 등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며 금석학은 동기(銅器)·철기(鐵器)·석비(石碑)·화폐·인장

(印章) 등에 새겨진 명문이나 유물 그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전화학과 금석학이 고고학의 하위항목으로 전개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KDC도 고고학을 상위 개념으로 재정의하여 금석학과 전학을 고고학 아래에서 전개하도록 한다.

둘째, 사부의 항목 중 지리류의 유기(遊記)는 기행(紀行)에 관한 모든 저작으로 KDC에서는 '980.2 名勝案内, 旅行' 아래에서 '980.22 史蹟, 名勝, 景觀'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근래에 이와 관련된 서적이 증가하고 있어 유기를 세분할 필요성이 있다. 중도법이 이를 상세히 전개하고 있어 참조하여 세분 전개하도록 한다.

<표 2> KDC와 동양의 십진분류법과의 사부 비교·분석

항목	KDC 제4관	CSC	NDC	중도법	비고
金石類	900 歷史 902 歷史補助學 4 金石學 5 考古學 6 錢貨學(古錢學) 911.002 補助學 .0024 金石學 .0025 考古學 .0026 錢貨學(古錢學)	710 世界史地 790 古器物: 考古學: 古物學 791 古器物彙考: 金石誌 792 甲骨 793 金屬器物 794 石 795 古書畫, 古文書 797 韓國古物志 798 各國古物志 799 系統考古學, 史前器物	200 歷史 202.5 考古學 .7 古錢學 .8 金石學: 金石文: 金石誌	K 歷史, 地理 K85 文物考古 853 紋章學 854 考古方法 86 世界文物考古 87 中國文物考古 金石學入此	금석학과 전학을 고고학의 하위항목으로 재배정
地理類·遊記	980 地理 980.2 名勝案内, 旅行 .208 名勝踏查集 및 紀行集 .22 史蹟, 名勝, 景觀 .24 世界旅行, 案内記 .29 探險記, 發見記	600 史地總論 660 中國地理志 670 中國地方志總論 671-676 各省地方志 677 臺灣史地 680 中國類志 681 中國都城: 疆域 682 水 683 山 684 各勝古蹟 685 人文地理: 人民: 政治: 風土 686 經濟地理: 物產: 實業: 交通 687 人物 688 文獻 689 잡기 690 中國遊記		K92 中國地理 928 地理 .1 疆界 .2 政治區劃 .3 山 .4 水 .6 歷史地理 .7 各地名勝古蹟滙編 .71 古建築 .72 遺址 .73 苑囿, 園林 .74 宮殿, 樓閣 .75 寺廟, 祠堂, 古塔 .76 陵墓 .77 城牆, 關隘 .78 橋梁, 鐵道 .79 其他 .8 現代著名建築 .9 旅行, 遊記	980.22를 중도법을 참조하여 세분 전개

3) 이선복, 「고고학 개론」(서울: 이론과 실천, 1993), 11.

3.3 子部

동양의 십진분류법의 자부 전개를 KDC 제4판과 비교·분석하여 KDC에서 신설되거나 세분 전개될 항목을 <표 3>으로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부의 시령은 세시(歲時)의 절령(節令)을 말한 책으로 자부의 농가류 아래에서 전개되는 것이 타당한데 KDC에서는 별도의 항목이 설정되지 않았고, 풍속과 관련된 세시와 시령만이 '386.5 年中行事' 아래에서 접근할 수 있어 불편하다. 이에 비해 CSC는 '430 農業' 아래 '432.1 氣候及時令'과 '327 歲時; 曆法' 아래에서 '327.1 季節, 時令' 항목을 두고 있고, 중도법은 'P19 時間, 曆法' 아래에서 'P193 季節, 時令' 항목을 배정하고 있다. KDC는 이를 참고하여 '520 農業, 農學'의 '521.4 農業氣象學' 아래에 시령을 신설하도록 한다.

<표 3> KDC와 동양의 십진분류법과의 자부 비교·분석

항목	KDC 제4판	CSC	NDC	중도법	비고
時令類	448 曆法, 測時法 歷史年代學->902.2	430 農業 432 農藝 .1 氣候及時令 植物與氣候入 373.514 參見 327.1 季節與時令 320 天文學總論 327 歲時: 曆法(應用 天文學) 327.1 季節, 時令	항목없음	P1 天文學 P19 時間, 曆法 192 計年法 193 季節, 時令	시령 항목 신설
天文算法類	442.1 天文臺, 觀測所 天文器機를 포함한다.	322.11 古儀器	항목없음	P111 天文儀器 P111.1 古代儀器	고의기 항목 신설

둘째, KDC에서는 천문산법류에 해당하는 고의기(古儀器)에 대한 언급이 없다. CSC는 '320 天文學總論' 아래에서 '322.11 古儀器'를 전개하고 중도법에서는 'P1 天文學' 아래에서 'P111.1 古代儀器'를 배정하고 있다. KDC에서는 '442.1

天文臺, 觀測所’ 아래 ‘천문의기를 포함한다’는 주기 두고 있어 이 항목에 분류할 수는 있지만 ‘440.902 古代天文學’ 아래에 배정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이에 고의기를 KDC에서 분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3.4 集部

동양의 십진분류법의 집부 전개를 KDC 제4판과 비교·분석하여 KDC에서 신설되거나 세분 전개될 항목을 <표 4>로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DC 제4판에서 전개된 ‘810.9 文學史, 評論’은 시대구분이 고전, 고려, 조선, 현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한국도서관협회의 제시안에서는 ‘810.906 現代文學, 1910-’의 구분을 구체화하여 810.906을 ‘810.906 20세기, 1910-1999’로 변경하였고, ‘810.907 21세기, 2000-’를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변경으로 810.906에서는 1910년 이후 근대의 문학을 수용하고, 810.907에서 2000년 이후 현대문학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문학형식에도 이러한 시대구분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표 4> KDC와 동양의 십진분류법과의 집부 비교·분석

항목	KDC 제4판	CSC	NDC	중도법	비고
詩 文 評 類	810.9 文學史, 評論 .903 古典文學 .904 高麗時代 .905 朝鮮時代 .906 現代文學, 1910-	820 中國文學總論 .901-.908 依中國 時代表複分	902 文學史, 文學 思想史 .03 古代 .04 中世 .05 近代	I206 文學評論化研究 .2 古代文學(-1840年) .5 近代文學 (1840-1919年) .6 現代文學 (1919-1949年) .7 當代文學(1949年-)	810.906의 시대 구분을 구체화

4. KDC에서의 한국학 관련 주제의 확장전개

KDC 제1판이 편찬된 이래로 KDC에서의 한국학 관련 주제의 항목 중 상법·운명판단, 불교경전, 한의학, 국악, 고문서는 도서관 현장으로부터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KDC의 개정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본 장에서는 한국학 관련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고,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도서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상법, 운명판단

상법, 운명판단은 KDC 제4판에서 '180 心理學' 아래 '188 相法, 運命判斷'으로 배정되어 있다. 상법, 운명판단의 하위 항목인 '188.8 占星法(術)'은 최근 장서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의 분류기호에 동양 점성술과 서양 점성술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분류표의 개선을 위해서 '188.8 占星法(術)'을 동양과 서양의 점성술로 각기 나누는 뒤 서양 점성술은 DDC 22판의 분류체계를 수용하여 전개하도록 한다.

DDC 22판은 서양 점성술의 분류가 매우 상세하게 전개되고 있다. KDC 제4판에서 이를 전부 수용하여 수정·전개하게 되면 서양 점성술에 치우치는 결과가 되어 동양 장서의 분류에는 적합하지 않다.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점성술 관련 자료는 서양 점성술의 별자리와 행성에 관한 장서가 주류를 이루므로 이를 중심으로 수용하여 전개하면, '188.8 占星法(術)'의 아래에 '188.83 동양 점성술', '188.85 서양 점성술'을 동위항목으로 신설하고, 서양점성술을 '188.852 12궁도', '188.853 행성, 해, 달'로 세분하여 전개하도록 한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여 <표 5>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KDC 제4판과 DDC 22판의 점성법(술) 비교·분석

KDC 제4판	DDC 22판	비 고
188.8 占星法(術)	133.5 Astrology .50882 History and description with respect to specific religious groups .5089 History and description with respect to specific racial, ethnic, national groups .509 Historical, geographic, persons treatment .52 Sign of the zodiac .53 Planets, sun, moon .54 Horoscopes .55 Astrological ephemerides .56 Horary astrology .58 Application of astrology to specific topics .59 Types or schools of astrology originating in or associated with a specific area	188.8 占星法(術) .83 동양점성술 .85 서양점성술 .852 12궁도 흑양좌, 황소좌, 천칭좌, 전갈좌 등의 별자리를 포함한다. .853 행성, 해, 달 수성, 금성 등을 포함한다.

4.2 불교경전

KDC 제4판은 불교를 220에, 불교경전을 223에 배정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 불교경전의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불교경전에 대한 연구 활동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행되는 불교경전의 양이 많아져서 현재 KDC 제4판의 분류체계로는 불교경전을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남방계경전은 223.1의 한 항목에만 배정되고 있어 상세하게 전개할 수가 없으므로 체계적인 분류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북방계경전은 여러 경전의 이름을 주기로만 언급하고 있어 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남방계경전과 북방계경전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방계경전에 있어서는 율장은 출가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과 승단의 규정 등이 담겨있는데 크게 경분별(經分別), 건도(健度), 부수(附隨)의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장은 석존의 교설로 장부(長部), 중부(中部), 상응부(相應部), 증지부(增支部), 소부(小部)로 나뉜다. 장부는 붓다와 제자들의 언행을 모은 긴 경전이며, 중부는 중간 정도 길이의 경전이다. 상응부는 짧은 경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모은 것이며, 증지부는 짧은 경을 교법의 수(數)에 의해 집성한 것이다. 소부는 앞의 네 가지 부에서 빠진 것을 모은 것이다.

논장은 경장에 대한 해석이나 논구(論究)로 앞의 二藏에 비해 그 성립시기가 늦다. 논장은 법집론(法集論), 분별론(分別論), 계론(界論), 인시설론(人施設論), 쌍론(雙論), 발취론(發趣論), 논사(論事)의 칠론(七論)이 있다. 이 칠론 외의 논서들을 일괄하여 장외(藏外)라 한다. 장외에는 미란왕문경(彌蘭王問經), 도왕총사·대왕총사(島王總史·大王總史), 소왕총사(小王總史), 청정도론(淸淨道論), 일체선견률주서(一切善見律註序), 섭아비달마의론(攝阿毘達磨義論), 아육왕각문(阿育王刻文) 등이 있다.⁴⁾

이와 같은 남방계경전의 율·경·논·장외 체계를 수용하여 KDC에 전개하되, 기존 KDC 제4판 북방계경전의 분류틀에 맞추어 경·율·론·장외의 체계로 재조정하여 분류하도록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표 6>과 같다.

KDC에서 북방계경전의 전개를 보면, ‘223.51-87’에 분류되어 있는데 경전의 이름들이 경전의 세목아래에서 주기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항목의 전개가 세분될 필요가 있는 것을 세분한다.

<표 7>은 ‘223.51 阿舍部’를 새롭게 전개한 것이며, 북방계경전의 ‘223.52 本緣部’, ‘223.58 經集部’, ‘223.59 秘密部’, ‘223.81 釋經論部’, ‘223.84 毘曇部’, ‘223.86 喩伽部’, ‘223.87 論集部’의 항목들도 이와 같이 전개하도록 한다. ‘223.59 秘密部’는 항목명을 ‘密敎部’로 변경하여 전개한다.

4) 大藏出版編輯部 編, 『南傳大藏經總目錄』(東京: 大藏出版, 2004), 1-3.

<표 6> KDC 제4판 불교 경전의 남방계경전 비교·분석

KDC 제4판	南傳大藏經總目錄	비 고
223.1 南方系經典	律藏 經分別 犍度 附隨 經藏 長部 中部 相應部 增支部 小部 論藏 法集論 分別論 界論 人施設論 雙論 發趣論 論事 藏外 彌蘭王問經 島王總史·大王總史 小王總史 清淨道論 一切善見律註序 攝阿毘達磨義論 阿育王刻文	223.1 南方系經典 .11 經藏 長部, 中部, 相應部, 增支部, 小部를 포함한다. .12 律藏 經分別, 犍度, 附隨를 포함한다. .13 論藏 法集論, 分別論, 界論, 人施設論, 雙論, 發趣論, 論事를 포함한다 .14 藏外 彌蘭王問經, 島王總史·大王總史, 小王總史, 清淨道論, 一切善見律註序, 攝阿毘達磨義論, 阿育王刻文 등을 포함한다.

<표 7> KDC 제4판 불교 경전의 북방계경전 비교·분석

KDC 제4판	비 고
223.5 經部, 經疏(經藏) .51 阿含部 長阿含經, 中阿含經, 雜阿含經, 增一阿含經, 六方禮經, 善生子經, 玉耶經 등을 포함한다.	223.5 經部, 經疏(經藏) .51 阿含部 .511 長阿含經類 .512 中阿含經類 .513 雜阿含經類 .514 增一阿含經類 .519 기타

4.3 한의학

KDC 제4판은 한의학을 519에 배정하였고, 그 배열순서를 보면 '510 醫學'의 요목 배열순서에 기초하고 있다. 510의 전개는 DDC와 UDC를 참고하여 서양의 학 체계에 기초하고 있어, 한의학의 주제 분류에는 적합하지 않다. KDC 제4판 한의학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519.01 理論'의 전개 체계가 재조정이 필요한 것, '519.1 한의基礎學'이 서양의학 위주로 전개된 것 및 '519.7 特殊 한방主題, 四象醫學'의 세분 전개가 필요한 것이다.

첫째, '519.01 理論'의 전개 체제에 있어 재조정이 필요한 것은 KDC 제4판에서 '519.01 理論'의 하위 항목은 '519.1 한의基礎學'을 동양의학의 체계에 맞추어 전개하게 되면 중복되는 항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재조정이 불가피 해진다. 따라서 '519.01 理論'의 하위항목을 '519.1 한의基礎學'에 포함시키고 '519 한의학' 아래 '-.01-.09 표준구분한다.'라는 주기를 넣어 '519.01 한의학의 철학 및 이론', '519.02 한의학 잡저' 등과 같이 전개하며, '519.09 역사 및 지역구분'에서는 동양 각국의 한의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KDC 제4판 '519.1 한의基礎學'은 그 주기에 '도서관에 따라 511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이에 따라 519.1을 '511 基礎醫學'에 의거하여 전개하면 한의학에 맞지 않는 생화학, 해부학, 미생물학 등이 전개되어 서양의학 위주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국 의학과 서양의학의 분류가 체계적으로 전개된 중도법을 참고하고, 한국 한의학 체계를 고려하여 수정·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519.1 한의基礎學

- .11 한의生理學
- .12 原典學
- .13 한의基礎理論
- .14 經穴, 經絡學
- .15 醫史文獻

- .16 各家學說
- .17 傷寒, 金匱
- .18 한의病理學
- .19 其他

위의 전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19.11 한의生理學'과 '519.18 한의病理學'은 기존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519.12 原典學'은 중도법의 'R221 內經'을 수용하였는데, 이는 '519.011 한의학醫經'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519.13 한의基礎理論'은 '519.01 理論'의 하위 항목들인 '519.012 陰陽五行論', '519.014 五運六氣論', '519.016 四象論', '519.019 기타 諸理論'을 한의학 체계에 맞게 수용하여 '519.13 한의基礎理論'의 하위 항목으로 재배정한 것이다.

'519.14 經穴, 經絡學'은 중도법 'R224 經絡·孔穴'을 수용하여 KDC 제4판 침구학의 하위항목인 519.92에 있던 것을 재배정한 것이다.

'519.15 醫史文獻'과 '519.16 各家學說'은 의학문헌연구와 학술사상을 전개할 수 있도록 배정된 것이다.

'519.17 傷寒, 金匱'는 중도법 'R222 傷寒·金匱'를 수용하여, 519.011의 주기로만 언급되고 있는 항목을 개별항목으로 신설한 것이다.

셋째, '519.7 特殊 한방主題, 四象醫學'은 하위 항목이 '519.72 한의 法醫學', '519.74 四象醫學', '519.76 한의 衛生學', '519.79 한의 獸醫學'이다. 이 중 사상의학과, 민간요법, 한의 위생학은 관련 서적이 증가하고 학문이 발전되어 세분 전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상의학의 세분 전개를 위하여 미사용 분류기호를 사용하여 '519.75 形象醫學', '519.77 體質醫學'을 신설하였고, '519.78 民間療法'은 '519.25 其他療法'의 주기로만 언급되고 있는 민간요법을 새로운 항목으로 신설한 것이다. '519.76 한의 衛生學'은 '517 衛生學, 公共醫學'에서 한의학에 맞는 부분만을 수용하여 전개하면 '517.6 防役'은 '519.766 한의豫防醫學'으로 '517.8 안전의학, 스포츠의학'은 '519.768 한의스포츠의학'으로 전개되고, 519.25의 주기

에 언급되고 있는 양생장수법은 '519.769 養生學'으로 전개하도록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표 8>과 같다.

<표 8> KDC 제4판 한의학 분야의 비교·분석

KDC 제4판	중도법 제4판	비 고
519 한의학 .01 理論 .011 한의학 醫經 .012 陰陽五行論 .014 五運六氣論 .016 四象論 .019 기타 諸理論 519.1 한의基礎學 .11 한의生理學 .12 한의生物學 .13 한의生化學 .14 한의解剖學 .15 한의微生物學 .16 한의寄生蟲學 .17 한의免疫學 .18 한의病理學 .19 한의實驗醫學	R1 豫防醫學·衛生學 R2 中國醫學 R22 中國基礎理論 221 內經 222 傷寒·金匱 223 中醫生理 224 經絡·孔穴 225 226 中國陰陽五行·運氣學說 227 228 中醫病理 229 其他 R3 基礎醫學 R4-7 臨床各科醫學 R8 特種醫學 R9 藥學	519 한의학 .01-.09 표준 구분한다. 519.1 한의基礎學 .11 한의生理學 .12 原典學 .13 한의基礎理論 .132 陰陽五行論 [前 519.012] .134 五運六氣論 [前 519.014] .136 四象論 [前 519.016] .139 기타 諸理論 [前 519.019] .14 經穴, 經絡學 [前 519.92] .142 經穴圖 [前 519.924] .15 醫史文獻 .16 各家學說 .17 傷寒, 金匱 .18 한의病理學 .19 其他
519.25 其他療法 양생장수법, 기료법, 방중술, 민간요법 등 을 포함한다. 519.7 特殊 한방主題, 四象 醫學 .72 한의 法醫學 .74 四象醫學 .76 한의 衛生學 .79 한의 獸醫學		519.25 其他療法 기료법, 방중술 등을 포함한다. 519.7 特殊 한방主題, 四象醫學 .72 한의 法醫學 .74 四象醫學 .75 形象醫學 .76 한의 衛生學 .766 한의豫防醫學 .768 한의스포츠의학 .769 養生學 .77 體質醫學 .78 民間療法 .79 한의 獸醫學

4.4 국악

KDC 제4판에서 국악은 679에 배정되었으며 그 배열순서를 보면 DDC의 강목과 거의 일치한다. KDC 제4판에서 국악 전개를 보면, '679.1 國樂理論 및 技法', '679.3 聲樂', '679.4 唱劇', '679.5 諸奏樂', '679.7 絃樂器', '679.8 吹奏樂器'와 같이 성악, 창극, 기악으로 대별하여 분류되고 있고, 이는 성악, 기악으로 대별되는 구미중심의 DDC 전개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악의 전개가 DDC의 전개방식에 기초하고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는데, 679의 전개가 우리의 전통적인 국악 분류 체계에 맞지 않는 것, 동양 제국의 전통음악을 분류항목으로 배정하지 않은 것, 기악의 전개가 전통악기의 분류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다.

첫째, 679의 전개가 우리의 전통적인 국악 분류 체계에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악 분류법을 살펴보면, 아악·당악·속악(향악)으로 나누는 3분법이 조선시대까지 주로 사용되었고, 이 3분법은 이후 아악과 민속악의 2분법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국악 특성에 맞는 분류표 전개를 위해서는 679.2에 정악, 679.3에 민속악을 전개하여 전통적인 분류체계를 반영하도록 한다. 전통적인 2분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창극, 창작국악은 '679.4 唱劇'과 '679.5 創作國樂'에 배정하여 전통적인 분류체계가 포괄하지 못하였던 영역을 포함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분류는 KDC 제5판 발간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안되었으며 이는 국립국악원의 분류체계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KDC 제4판은 동양 제국의 전통음악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이 배정되지 않았다. 이에 '679 國樂'을 '679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으로 변경하고 제4판에서 미사용 기호인 679.9에 동양전통음악을 배정하도록 제안되었다.⁵⁾ 679.9는 지역구분 조기성을 살려서 '679.92 중국전통음악', '679.93 일본전통음악'과 같이 전개하도록 한다.

셋째, 기악의 분류는 전통악기의 분류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악학궤범(樂學軌範)」의 분류법인 계통법에 의거하여 기존 분류인 '679.7 絃樂器', '679.8 吹奏樂器'를 '679.6 打樂器', '679.7 絃樂器', '679.8 管樂器'로 재배정하도록 한다. 타악기

5) 한국도서관협회,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 한국십진분류법(KDC) 제5판 발간에 관한 공청회자료집」(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8), 51.

KDC 第4版에서의 四部分類 項目 展開의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는 KDC 제4판에서는 취주악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679.8 吹奏樂器'의 하위항목으로 배정되어 있었다. 이에 미사용기호인 679.6를 사용하여 타악기를 배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취주악기는 현대적 의미의 관악기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표 9>와 같다.

<표 9> KDC 제4판 국악 분야 전개 분석

KDC 제4판	비 고
679 國樂	679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
679.1 國樂理論 및 技法	679.1 국악이론(악전)
.2 ---	.2 정악
.3 聲樂	.21 성악
.4 唱劇	.22 기악
.5 諸奏樂	.23 의식음악
.6 ---	.3 민속악
.7 絃樂器	.31 성악
.8 吹奏樂器	.32 기악
.89 打樂器	.33 불교음악
.9 ---	.34 무속음악
	.4 창극
	.5 창작국악
	.51 성악
	.52 기악
	.53 종교음악
	.6 타악기
	.61 율악기
	.62 무율악기
	.7 현악기
	.71 활현악기(궁현악기)
	.72 발현악기
	.73 타현악기
	.8 관악기
	.81 가로로 부는 악기
	.82 세로로 부는 악기
	.9 동양전통음악
	.92 중국 전통음악
	.93 일본 전통음악
	.94 동남아시아 전통음악
	.95 인도 전통음악
	.96 중앙아시아 전통음악
	.97 시베리아 전통음악
	.98 서남아시아, 근동(중동) 전통음악
	.99 아리비아반도 전통음악

4.5 고문서

KDC 제4판에서 고문서는 911.0091에 배정되었는데 세분하여 전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의 항목에서 다양한 고문서가 동일하게 분류되는 문제점이 끊임 없이 지적되어 왔다. 고문서의 항목 개선을 위해서는 고문서의 전 주제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고문서학회의 ‘고문서 정리 표준화안’의 ‘한국고문서분류표(안)’을 채택하여 수용하도록 한다.

911.0091의 개정을 위해서는 ‘한국고문서 정리 표준화(안)’의 강목표까지만 수용하여 전개하도록 한다. 본표까지 적용하여 전개한다면, 분류기호가 길어지는 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강목표까지만 전개하여도 고문서 분류를 체계화할 수 있으며, 기존의 분류표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KDC 제4판 고문서와 ‘한국고문서 정리 표준화(안)’의 비교·분석

KDC 제4판	한국고문서 정리 표준화(안)	비고
911.0091 고문서류 詔書, 綸音, 傳敎, 諭示, 教旨, 奏疏, 封事, 啓文, 通文, 稟目, 手標, 立案, 完文 등을 포함한다.	000 일괄문서 010 국왕·왕실 일괄문서 020 중앙기관 일괄문서 010 지방기관 일괄문서 (생략) 100 국왕·왕실 110 교령 120 보고 130 책봉·의례 (생략) 200 정치·행정 210 조직·운영 220 임면 240 명령 (생략) 300 사법·법제 310 법령 320 소송·판결·공증 340 형벌	911.0091 고문서 조서, 윤음, 전교, 유시, 교지, 주소, 봉사, 계문, 통문, 품목, 수표, 입안, 완문 등을 포함한다. .00911 국왕, 왕실문서 교령, 보고, 책봉·의례, 공신, 공궐제도 등을 포함한다. .00912 정치, 행정문서 조직·운영, 임면, 명령, 보고, 외교, 국방, 포상 등을 포함한다. .00913 사법, 법제문서 법령, 소송·판결·공증, 형벌, 사면, 법의학, 치안 등을 포함한다. .00914 산업, 경제문서 농업·수산업, 유통·시장, 재정, 부세, 회계, 금융, 매매·교역, 상속·증여, 토목·건축 등을 포함한다. .00915 사회문서 인구·호적, 신분, 진흥, 족보, 가족·친족, 촌락조직, 결사조직, 사회운동 등을 포함한다.

KDC 第4版에서의 四部分類 項目 展開의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생략)	.00916 교육, 문화문서
400	산업·경제	관학교육, 사학교육, 가정·여성교육, 과거, 문
410	농업·수산업	학·저술, 출판·인쇄, 예술, 과학 등을 포함한다.
420	유통·시장	
430	재정	.00917 종교, 풍속문서
	(생략)	유교, 불교, 도교·기독교, 민속신앙, 일상의례,
500	사회	민속놀이, 의식주, 건강·의료 등을 포함한다.
510	인구·호적	.00918 개인자료문서
520	신분	간찰, 일기, 행장·전기, 시문·기행문, 금석문,
530	진흥	비망기, 연보, 유서·유언 등을 포함한다.
	(생략)	.00919 기타문서
600	교육·문화	
610	관학교육	
620	사학교육	
630	가정·여성교육	
	(생략)	
700	종교·풍속	
710	유교	
720	불교	
730	도교·기독교	
	(생략)	
800	개인자료	
810	간찰	
820	일기	
830	행장·전기	
	(생략)	
900	기타	

5. KDC 제4판의 개선방안

5.1 經部

경부의 항목 중 앞서 비교한 결과 예류, 사서류 및 자서류에서는 신설되어야 할 항목이 있었고, 춘추류에서는 주기의 변경이 필요하였으며, 자서류에서는 항목의 이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가 제안한 경부에 해당되는 주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류의 다섯 개의 속(屬) 중에서 항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삼례총의, 통례, 잡례를 '144 禮類' 아래에서 미사용 기호를 사용하여 '144.5 通禮', '144.6 三禮總義', '144.7 雜禮'로 배정한다.

둘째, KDC 전개에서 누락되거나 개별 항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논맹, 학용, 삼전총의, 삼전이문을 미사용 기호인 148.5-.6을 이용하여 '148.5 論孟'과 '148.6 學庸'으로 전개하고, 삼전총의와 삼전이문은 장서량이 많지 않으므로 개별항목으로는 설정하지 않고 '146 春秋'의 주기에 '삼전총의와 삼전이문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셋째, '721.3 注音符號'는 721.1의 하위항목인 721.18로 이치한다.

넷째, '721.2 文字, 漢字' 아래 '721.23 註釋本', '721.24 六書(造字方法)', '721.26 字形'을 신설하였고, 자형은 '721.261 古文', '721.262 篆書', '721.263 隸書', '721.264 楷書', '721.265 行書', '721.266 草書'로 세분하여 전개하도록 하였다.

5.2 史部

사부의 항목 중 앞서 비교한 결과 금석류에서 항목의 이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으며, 지리류 유기와 조령주의류에서 세분 전개가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가 제안한 사부에 해당되는 주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KDC는 금석류를 '902 歷史補助學' 아래, '902.4 金石學', '902.5 考古學', '902.6 錢貨學(古錢學)'으로 전개하였는데, 전화학과 금석학은 고고학의 하위항목으로 전개되는 것이 타당하여 '902.5 考古學', '902.54 金石學', '902.56 錢貨學(古錢學)'으로 분류기호를 조정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배정하였을 때 '911.002 補助學' 아래 '911.0024 金石學', '911.0025 考古學', '911.0026 錢貨學(古錢學)'도 '911.0025 考古學', '911.00254 金石學', '911.00256 錢貨學(古錢學)'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둘째, 지리류의 유기(遊記)에 해당하는 '980.22 史蹟, 名勝, 景觀'은 중도법을 참고하여 '980.221 古建築', '980.222 遺址', '980.223 宮廷', '980.224 樓閣', '980.225

寺廟, 祠堂’, ‘980.226 陵墓’, ‘980.227 塔’, ‘980.229 其他’로 세분하여 전개하도록 한다.

셋째, KDC에서 조령주의류는 ‘911.0091 古文書類’ 하나의 항목에 여러 종류의 고문서가 동일하게 분류되고 있어, 한국고문서학회의 ‘한국고문서분류표(안)’을 참조하여 본표의 강목까지만을 수용하여 ‘911.00911 국왕, 왕실문서’, ‘911.00912 정치, 행정문서’, ‘911.00913 사법, 법제문서’, ‘911.00914 산업, 경제문서’, ‘911.00915 사회문서’, ‘911.00916 교육, 문화문서’, ‘911.00917 종교, 풍속문서’, ‘911.00918 개인자료문서’, ‘911.00919 기타문서’로 세분하여 전개하도록 한다.

5.3 子部

자부의 항목 중 앞서 비교한 결과 시령류, 천문산법류에서 항목이 신설될 필요성이 있었고, 술수류, 불교경전류, 의가류, 국악은 항목의 신설 및 세분 전개, 분류 기호의 재배정 등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가 제안한 자부에 해당되는 주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KDC에서는 시령류가 누락되고 전개되지 않아, ‘520 農業, 農學’의 ‘521.4 農業氣象學’ 아래에 ‘521.49 時令’을 신설하고, 풍속과 관련된 세시는 386.5에서 역법에 관련된 시령은 448에 분류하도록 주기한다. 448의 주기에는 ‘세시, 시령을 포함한다. 풍속은 386.5, 농업은 521.49에 분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다.

둘째, KDC에서는 천문산법류에 해당하는 고의기를 항목으로 배정하고 있지 않아 ‘440.902 古代天文學’ 아래에 ‘440.9021 古儀器’로 신설하거나 ‘440.902 古代天文學’의 주기로 ‘고의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셋째, KDC에서 술수류에 해당하는 ‘188.8 占星法(術)’은 최근 서양 점성술에 관련된 장서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분류할 항목이 없어 ‘188.8 占星法(術)’의 아래에서 동·서양 점성술이 혼재되어 분류된다. 이에 동·서양을 구분하여 ‘188.83 동양 점성술’과 ‘188.85 서양 점성술’로 배정하고, 서양 점성술은 DDC 22판을 참고하여 ‘188.852 12궁도’와 ‘188.853 행성, 해, 달’로 세분하여 전개하도록

록 한다.

넷째, KDC 불교경전에서 남방계경전은 223.1 하나의 항목에만 배정되어 있어 상세하게 전개할 수 없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남방계경전 아래에서 경·율·론·장외로 세분하여 분류하도록 한다. 경장은 '223.11 經藏'으로 배정하고 주기에 '장부, 중부, 상응부, 증지부, 소부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으며, 율장은 '223.12 律藏'으로 배정하고 주기에 '경분별, 건도, 부수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고, 논장은 '223.13 論藏'으로 배정하고 주기로 '법집론, 분별론, 계론, 인시설론, 쌍론, 발취론, 논사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는다. 이외의 논서들을 일괄하여 '223.14 藏外'로 분류한다. 북방계경전은 '223.51-.87'에 분류되어 있는데 경전의 이름들이 경전의 세목아래에서 주기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항목의 전개가 세분될 필요가 있는 것은 세분한다.

다섯째, KDC에서 의가류에 해당하는 한의학은 그 전개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의 개선방안을 위해 '519.01 理論'의 하위항목들은 '519.1 한의基礎學'에 포함시키고, '519 한의학' 아래 '-.01-.09 표준구분한다.'는 주기를 넣는다. 519.1을 '511 基礎醫學'에 의거하여 전개하면 한의학에 맞지 않는 생화학, 해부학, 미생물학 등이 전개되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도법을 참고하고, 한국 한의학 체계를 고려하여 수정 전개하도록 한다. '519.7 特殊 한방主題, 四象醫學'은 그 영역이 발전되어 항목의 세분 전개가 필요하다. 사상의학과 민간요법의 세분 전개를 위하여 미사용 분류기호를 사용하여 '519.75 形象醫學', '519.77 體質醫學', '519.78 民間療法'으로 신설하여 전개하도록 하며, '519.76 한의衛生學'은 '517 衛生學, 公共醫學'에서 한의학에 맞는 부분만을 수용하여 전개하면 '519.766 한의豫防醫學', '519.768 한의스포츠의학', '519.769 養生學'으로 세분하여 전개된다.

여섯째, KDC에서 금보지속(琴譜之屬)에 해당하는 국악은 그 전개가 우리의 전통적인 국악 분류 체계에 맞지 않고, 동양 제국의 전통음악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이 배정되지 않았고, 기악의 전개가 전통악기의 분류체계에 맞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79.2에 정악, 679.3에 민속악을 전개하여 전통적

인 분류체계를 반영하며 전통적인 2분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창극, 창작국악은 '679.4 唱劇'와 '679.5 創作國樂'에 배정하도록 한다. 동양 제국 전통음악의 전개를 위해서는 '679 國樂'을 '679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으로 변경하고 4판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679.9에 동양전통음악을 배정한다. 기악의 분류는 전통악기의 분류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악학궤범의 분류법인 계통법에 의거하여 기존 분류인 '679.7 絃樂器', '679.8 吹奏樂器'를 '679.6 打樂器', '679.7 絃樂器', '679.8 管樂器'로 재배정하도록 하며, 각 항목의 세분 전개는 타악기는 유율악기와 무율악기로 세분하고, 현악기는 활현악기, 발현악기, 타현악기로 세분하며, 관악기는 가로로 부는 악기, 세로로 부는 악기로 세분하여 전개하도록 한다.

5.4 集部

집부의 항목 중 앞서 비교한 결과 한국문학사에서 시대구분의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가 제안한 집부에 해당되는 주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문학사의 '810.9 文學史, 評論'에서 '810.906 現代文學, 1910-'를 '810.906 20세기, 1910-1999'로 변경하였고, '810.907 21세기, 2000-'를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구체화된 시대구분을 각 문학형식에도 반영하도록 한다.

6. 結 論

위에서 연구한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KDC 제1판부터 제4판까지의 사부분류 항목 전개의 변화를 분석하여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부분류 항목은 용어의 변경, 분류항목의 이치, 주기의 신설·변경·삭제,

항목의 삭제 및 신설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경부 경전류의 변화는 KDC 제1권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어의 변경, 분류항목의 이치, 주기의 변경 등이 이루어졌고, 소학류는 분류항목의 이치, 주기의 변경, 항목의 신설이 이루어졌다.

사부 역사서의 전개에서는 용어의 변경, 분류항목의 이치, 주기의 신설이 이루어졌다. 목록류인 '018 販賣書誌'는 3판에서 개념이 확대되어 항목명이 참고서지로서 변경되면서 항목 내에서 변경이 있었다. 전기류에서는 주기의 변경, 항목의 신설 등의 변경이 나타났다.

자부 전개과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한의학과 불교가 큰 폭으로 변경된 점이다. 한의학은 '519.2 한의臨床學', '519.7 特殊 한방主題, 四象醫學', '519.8 한의藥學'이 한의학의 특성을 고려한 항목의 신설과 세분·전개가 이루어졌고, 불교는 용어의 변경, 분류항목의 이치, 항목의 신설 및 삭제가 나타났으며, 국악에서는 용어의 변경과 주기의 변경 등이 있었다.

집부에서는 용어의 변경과 항목의 신설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변경이 있었지만 KDC는 4판까지 발행되면서 사부분류 항목 전개에서 필요한 고문서류의 세분 전개나 시령 항목의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의학에서도 KDC가 서양의학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의 개정과 불교가 북방계경전에 치우친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악에서도 전통 음악 분류체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KDC 제4판과 동양의 십진분류법의 사부분류 항목을 비교·분석하여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KDC의 경전류는 CSC와 중도법의 전개와 비교해서 누락되었던 삼례총의, 통례, 잡례의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삼전총의와 삼전이문은 장서량이 많지 않아 주기의 내용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주기에만 언급되어 있었던 논맹, 학용은 CSC를 참고하여 개별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소학류의 전개에서는 CSC를 참고하여 주음부호를 중국 '721.1 音韻, 音聲, 發音'의 하위항목으로 이치하였고, 자서류는

CSC를 참고하여 세분 전개하였다.

KDC의 금석류는 CSC와 중도법을 참고하여 금석학과 전화학을 고고학의 하위항목으로 재배정하였고, 지리류 중 유기는 최근 관련 서적의 증가로 세분할 필요성이 있어 중도법을 참고하여 세분 전개하였다.

KDC에서 항목으로 배정되지 않았던 시령은 CSC와 중도법을 참고하여 '521.4 農業氣象學' 아래에 신설하였고, 천문산법류에 해당하는 고의기도 CSC와 중도법을 참고하여 '440.9021 古儀器'로 신설하거나 '440.902 古代天文學'의 주기에 '고의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집부에서는 한국문학사의 시대구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810.906 現代文學, 1910-'을 '810.906 20세기, 1940-1999'로 수정하고, '810.907 21세기, 2000-'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세분된 시대구분을 각 문학형식에도 반영하도록 하였다.

3) KDC 한국학 관련 주제의 확장전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법, 운명판단의 하위항목인 '188.8 占星法(術)'은 하나의 분류기호에 동·서양의 점성술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전개하기 위해, '188.83 동양 점성술'과 '188.85 서양 점성술'을 신설하여 배정하고, 서양 점성술은 DDC 22판을 참고하여 세분하여 전개하였다.

둘째, 불교경전에서 남방계경전은 '223.1' 하나의 항목에 배정되고 있어 상세하게 전개할 수가 없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남방계경전의 율·경·론·장외의 체계를 수용하되, 북방계경전의 틀에 맞추어 경·율·론·장외로 재조정하여 전개하였다. 북방계경전은 경전의 세목 아래에 경전의 이름들이 주기로 언급되고 있는데, 항목의 전개가 세분될 필요가 있는 것은 항목을 신설하여 전개하였다.

셋째, 한의학 분류체계는 '519.01 理論'의 전개 체계에서 재조정이 필요하였고, '519.1 한의基礎學'이 서양의학 위주로 전개되었으며, '519.7 特殊 한방主題, 四象 醫學'의 세분 전개가 필요하였다. 이에 '519.1 한의基礎學'을 중도법을 참고하고 한국 한의학 체계를 고려하여 수정·전개를 하였다. 519.1에서 '519.01 理論'의 하위항목들을 포함하였고, '519' 아래에 '-.01-.09 표준구분한다.'라는 주기를 신설

하였다. '519.7 特殊 한방主題, 四象醫學'은 미사용 분류기호를 사용하여 '519.75 形象醫學', '519.77 體質醫學', '519.78 民間療法' 항목을 신설하여 전개하였다. '519.76 한의衛生學'은 '517 衛生學, 公共醫學'에서 한의학에 맞는 부분만을 수용하여 '519.766 한의豫防醫學', '519.768 한의스포츠의학', '519.769 養生學'을 새롭게 전개하였다.

넷째, 국악은 679의 전개가 우리의 전통적인 국악 분류 체계에 맞지 않고, 동양제국의 전통음악을 분류항목으로 배정하지 않았으며, 기악의 전개가 전통악기의 분류체계에 맞지 않았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679.2에 정악, 679.3에 민속악을 전개하여 전통적인 분류체계를 반영하였고, '679.4 唱劇'과 '679.5 創作國樂'을 배정하여 전통적인 분류체계가 포괄하지 못하였던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679 國樂'을 '679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으로 변경하였고 4판에서 미사용기호인 679.9에 동양전통음악을 배정하여 동양제국의 전통음악을 분류할 수 있게 하였다. 기악의 분류는 전통악기의 분류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악학궤범」의 분류법인 계통법에 의거하여 전개하였다.

다섯째, 고문서는 '911.0091 古文書類' 하나의 항목에서만 전개되어 다양한 고문서가 동일하게 분류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국고문서학회의 '한국고문서분류표(안)'을 채택하여 이 표준화(안)의 강목표까지 수용하여 전개하였다.

4) KDC의 개선방안을 항목의 신설, 주기의 변경 및 삭제, 분류항목의 이치로 나누어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의 신설은 경부의 경전류에서 '144.5 通禮', '144.6 三禮總義', '144.7 雜禮', '148.5 論孟', '148.6 學庸'을 신설하였고, 소학류에서 '721.23 註釋本', '721.24 六書(造字方法)', '721.26 字形'을 신설하고, 자형은 세분하여 전개하였다. 사부 지리류의 유기에서 '980.22 史蹟, 名勝, 景觀'의 하위항목을 신설하여 980.221-.229에 세분하여 전개하였으며, 조령주의류인 '911.0091 古文書類'는 항목 아래에 911.00911-.00919를 신설하여 고문서를 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의

학에서는 519.11-519.19를 한의학 학문 체계에 맞게 항목을 신설하거나 재배정하였고, '519.75 形象醫學', '519.77 體質醫學', '519.78 民間療法'을 신설하여 한방 특수 주제를 세분하였고, '519.76 한의 衛生學' 아래에 하위항목을 신설하여 전개하였다. 국악에서는 '679.2 正樂', '679.3 民俗樂', '679.4 唱劇', '679.5 創作國樂', '679.6 打樂器', '679.7 絃樂器', '679.8 管樂器', '679.9 東洋傳統音樂'의 체계로 항목을 신설하거나 분류기호를 이치하여 재정비하였다. 자부에서는 '521.49 時令'과 '440.9021 古儀器'를 신설하였고, '188.8 占星法(術)'은 하위항목으로 '188.83 동양 점성술'과 '188.85 서양 점성술'을 신설하고, 서양 점성술은 DDC 22판을 참고하여 세분하여 전개하였다. 석가류에서는 '223.1 南方系經典'의 하위항목으로 '223.11 經藏', '223.12 律藏', '223.13 論藏', '223.14 藏外'를 신설하였고, 북방계경전은 경전의 세목 아래에 주기로 언급되고 있는 경전명 중에서 세분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집부에서는 '810.906 現代文學, 1910-'를 '810.906 20세기, 1910-1999'로 변경하고, '810.907 21세기, 2000-'를 신설하였고, 이와 같이 세분된 시대구분을 각 문학형식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주기의 변경은 경전류 '146 春秋'의 주기에 '삼전총의와 삼전이문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분류항목의 이치는 '721.3 注音符號'를 721.18로 이동하였고, '902.4 金石學', '902.6 錢貨學(古錢學)'을 '902.5 考古學'의 하위항목인 '902.54 金石學', '902.56 錢貨學(古錢學)'으로 이치하였고, '911.0024 金石學'과 '911.0026 錢貨學(古錢學)'도 '911.0025 考古學'의 하위항목인 '911.00254 金石學', '911.00256 錢貨學(古錢學)'으로 이치하였다.

<참고문헌>

- 강순애. 고문헌의 조직과 정보활용.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
 _____. "한국 고문서의 정리현황과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서지학회』

- 제26집(2003), 51-83.
- 강순애 외.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교육인적 자원부, 2005.
- 권영규. “한국십진분류법(KDC)의 한의학 분류에 대한 소고.” 『東西醫學』 제13집(1988), 31-48.
- _____. “한국도서분류법의 한의학분야 개정안에 관한 연구.” 『東西醫學』 제21집(1996), 3-38.
- 김영운. “우리음악 분류를 위한 새로운 시안에 대한 논평.” 『한국 음악연구』 제20집(1992), 170-177.
- 김종천. “중국도서관분류법의 분류 기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22집(2001), 201-229.
- 신대철. “우리음악 분류를 위한 새로운 시안.” 『한국 음악연구』 제20집(1992), 149-169.
- 엄석기. “한의학 문헌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중 한의학 부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4.
- 오동근. 『KDC의 이해』. 서울: 태일사, 2002.
- 윤장욱. “한국십진분류법의 불교분야 보증에 관한 연구: 경전 분류전개 시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1.
- 이남희. “디지털 시대의 고문서정리 표준화.” 『한국고문서학회』 제22집(2003), 25-50.
- 이선복. 『고고학개론』. 서울: 이론과실천, 1988.
- 이선영. “한의학 문헌분류전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3.
- 이해준. “고문서 분류체계 시안.” 『한국고문서학회』 제22집(2003), 79-118.
- 임동빈. “고서의 십진분류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85.
- 임승양. “한국십진분류법의 동양학관계항목 개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4.

- 장혜원. “KDC제4판 ‘국악 679’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천혜봉. 고서분류목록법 .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0.
- 한경신. “한국음악자료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집(1998),
5-34.
- _____.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음악분야 전개상의 제문제.” 한국도서관·정보
학회지, 제30집(1998), 31-61.
-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 정리 표준화안 연구결과보고서 . 서울: 한국고문서학회,
2003.
- 한국도서관협회.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 한국십진분류법(KDC) 제5판 발간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8.
- 한중희. “십진분류표의 불교 분야 비교분석 및 KDC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 현영아. “사부 분류법의 분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7.
- 후지타 코오타츠. 권오민 역. 「초기·부파불교의 歷史」. 서울: 민족사, 1989.

